

2016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함께하는 삶, 나누는 기쁨!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는 이 날을 자원봉사자라면 모두 기다렸을 것이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피두레단의 풍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1995년부터 10대부터 80대까지 구성된 47명의 송산면 주민으로 우리 고유의 농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는 농악단이다. 흥겨운 한마당이 끝나고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수상자들의 수상 후 내외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점심식사는 맛있는 뷔페와 바비큐파티가 이어졌다.

한마음 체육대회 시작 전 발안 나우 에어로빅팀의 공연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으며, 체육대회는 나눔, 실천, 사랑심으로 나눠 열띤 응원을 비롯해 풍선기둥세우기, 봉사자의 마음을 전하자, 단체줄넘기, 기차놀이 등 모두가 하나되는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는데 봉사자 모두 학창시절로 돌아가 운동회를 즐겼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의 하이라이트 경품추첨이 이어졌다.

푸짐한 경품은 화성시 각 단체 및 기관, 개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정회원들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봉사자들은 조마조마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기만을 기다렸다. 함께 웃고 즐기는 자원봉사자의 날은 2016년 자원

2016자원봉사자의 날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 대상	이유란
자원봉사 신인상	강전용, 정재영
화성시장 단체	손뜨개질봉사단
화성시장 개인	김선례, 김성남, 김순기, 김영건, 김영민, 김진후, 박기영, 성필선, 송은주, 양은미, 엄귀엽, 왕세현, 이종학, 임승석, 조은정, 최정임
화성시의회의장	박헌정, 원경호
국회의원	김영숙, 여찬수, 이영신, 전만찬, 김병일, 정동신
경기도센터이사장	김혁중, 심규용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소희, 김지우, 박호정, 변수현, 이미경

봉사 활동을 자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진행된 기념행사로 훈훈하고 따뜻한 자원봉사자들의 축제, 나눔, 기쁨, 행복의 한마당이 되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가화(자원봉사자)
betamom@naver.com



센터소식 한눈에 보세요!



본 화성 V-NEWS는 두 달에 한 번 발행됩니다.

화성 V-뉴스 미리보기

- 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 2- 김장나눔행사
- 3- 자원봉사 불입 박람회
- 4- 자원봉사워크샵
- 복지화성대축제
- 5- 우리꽃식물원
- 여성단체 체육대회
- 6- 2016년 자원봉사 '대상'
- 7- MOU 현황
- 삼성전자 집수리 기업봉사
- 8- 화성탐방(용주사)
- 햇살드리 축제
- 9- 보수리여자교육
- 기업한조온프로그램
- 10- 치동천힐링마을MOU
- 다문화 김장나눔
- 11- 편방 만들기
- 청소년 환경정화
- 12- 다문화연도링
- 양로원봉사
- 13- 연탄나눔활동
교육지원활동
- 14- 로템의집
- 우리동네 이런곳이
- 프레디저
- 15- 수질검사
- 노인복지 해택
- 봉담암 모여라
- 16- 봉사관련 법률
- 책소개
- 생활한자

2016년 김장나눔 행사

겨울 **愛** 아삭아삭 사랑나눔 김장축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마당을 물들이다



추운 겨울철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김장나눔축제가 11월 14일(월) 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김장축제는 화성시 관내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장애인 및 노인, 아동시설,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나누어 줄 김장김치를 삼성전자 DS부문과 화성시자원봉사 단체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삼성전자 DS부문에서 후원하여 진행되는 김장축제는 시의원, 화성자원봉사센터 김영을 이사장, 화성시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삼성전자 전영현 사장 자원봉사단체, 삼성전자 임직원, 기업봉사단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됐다.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주부봉사자와 처음 김장을 해본다는 남자어르신도 계셨고 새내기봉사자가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또한 함께 참여하여 큰 눈길을 끌었다.

이른 아침 날씨는 흐렸지만 행사가 더 해 질수록 따사로운 햇살이 비춰지고 그 마음이 베풀어 포기마다 사랑의 양념으로 버무려졌고 마무리에 약간 비가 내렸지만 출선수범하여 마무리까지 포장작업 완료하였다. 올해 20회째 진행되는 김장축제는 작년보다 5톤이 늘어난 40톤(10kg 4,000박스)이었다.

김장비용 인상으로 걱정이 많았던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넘치는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봉사자들의 넉넉함에 감사해진다.

행사를 마친 후에도 참여한 모든 분들은 내년에도 김장나눔행사에 또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소현(자원봉사자) easycart@naver.com



자원봉사 봉업 박람회

KB국민은행(사회공헌)과 함께하는 화성시 자원봉사 봉-UP 박람회

화성시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문화 및 확산을 통해 건전한 시민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29일 토요일 화성시 자원봉사 봉-UP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2016년 화성시자원봉사문화 확산의 해를 맞이하여 자원봉사자의 출신 수범을 통한 재능과 나눔 문화를 일깨워 주는 장을 만들어 나눔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화성, 살기 좋은 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홍보, 나눔, 체험, 재능으로 51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개막을 알리는 봉사동아리 단체들의 멋진 공연으로 행사는 시작되고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김영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뜻 깊

은 시간을 통해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내용으로 봉-UP 박람회 시작을 알렸다.

개인 및 판매 수요처, 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2,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봉사자의 소양 및 기능 안내, 신규 접수, 홍보물 배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판매부스운영, 청소년로봇 봉사단의 재능나눔 등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실버체험관은 초·중·고·일반인들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약자와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체험을 통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체험자들은 기뻐한다.

처음으로 가입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는 특별 이벤트를 열어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도 되

었다.

화성시자원봉사센터는 봉-UP박람회를 통해 나눔이 일상이 되어 자원봉사가 삶속에 녹아있는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형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능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로는 연말에 소의계종을 위하여 소중한 선물로 따뜻하게 쓰여질 계획이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봉사자들의 출신 수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들 속에서 화성시의 거듭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소현(자원봉사자) easycart@naver.com



*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화성시 자원봉사 봉-UP 박람회

재능 ♡
홍보 ♡
의료 ♡

기관 ♡
나눔 ♡
체험 ♡



자원봉사워크숍

2016년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

" 추억으로 떠나는 수학여행 "



2016년 자원봉사로 역동하는 화성시를 위해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임원진 및 단체회원, 사회단체, 자원봉사 우수수요처 실무자들과 함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간 이해를 통해 활동분야 확보와 강화를 위해 설악 뫼피노리조트로 9월29일~30일(1박2일) 워크숍을 다녀왔다.

1년동안 수고하셨던 자원봉사자들이 많았기에 대상자 선정에 심의를 기울여 200여명의 대상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오전 8시, 5군데에서 각각 출발하였는데 남양성지, 용주사, 자원봉사센터, 봉담읍, 동탄(나래울)에서 각각 출발하였다.

가을의 문턱에서 소풍가듯 들뜬 마음들이여서 그런지 얼굴빛 하나하나에 웃음꽃들이 피었다.

첫 번째 여정으로 영금정 등대전망대 관람을 시작으로 뫼피노 리조트에 입소식을 마치고

"힐링 두드림 난타"를 3시간동안 배우고 익히고 발표까지 열정적으로 온몸으로 표현해 내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역동적이었다.

저녁식사 이후의 친교의 시간에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개인 및 단체 소개를 통해 봉사자들간 하나라는 분위기가 장내를 뜨거움으로 물들었다.

어울림 마당으로 준비한 장기자랑 시간에는 열기가 설악산이 달궈지는 울동과 함성으로 더욱 더 서로를 알게 되어 고마운 표정들이었다.

다음날 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내년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화합으로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 시간별 여정인 신흥사 문화탐방, 요선암, 주문진항을 둘러 안전하게 모두를 귀가 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런 소통과 화합의 장이 계속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소현(자원봉사자) easycart@naver.com

복지화성대축제

제 6 회 만나면 두근두근 " 복지 화성 대축제 "



2016년 10월 22일, 사회 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서 제6회 복지 화성 대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만나면 두근두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개회식 및 기념식인 1부를 시작으로 2부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함께 걷기 대회', 3부 '화성시 복지 한마당', 4부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서 눈에 띄었던 행사는 바로 '다함께 걷기 대회'이다. 이 행사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불편함을 도와가며 걷는 행사로 코스 중간에 뽕에로 풍선 공연 등 볼거리도 있어 걷는 길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 한 분은 "경기장 한 바퀴정도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이 기회에 경기 타운도 돌아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복지 축제인 만큼 다문화,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부스가 많이 있었다. 휠체어 타보기, 세계 의상 체험하기, 세계 전통놀이 체험하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4개 이상 체험하고 확인을 받으면 봉사시간을 주거나 간식을 주는 이벤트도 있어 학생들에게 일거양득인 행사가 되었다.

이 복지 화성 대축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 복지라는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고 더욱 공감하게 배울 수 있는 축제이다.

만약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추억을 쌓아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다면 다음 복지 화성 대축제에 참가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주희(청소년 자원봉사자) easycart@naver.com 이지현(청소년 자원봉사자) hyunwldl@naver.com

우리꽃식물원



국화향기 가득한 축제에 가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서 가을 국화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열렸다.

색다른 국화 분재와 다양한 국화꽃이 전시되어 있고 국화 분재는 자그마한 꽃들이 세월을 머금고 있는 나무에 달려 있었고 색이 모두 달라 보는 재미가 있었다.

국화축제에서는 시민들이 꽃과 친해질 수 있도록 꽃 누르미 체험, 식물 심기 체험, 꽃 차 시음 체험 등 체험이 다양하여 가족끼리 꽃을 보러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떡볶이, 어묵, 호떡, 두툼떡 등 맛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었다. 가을에 국화꽃이 피는 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추위가 강해져 따뜻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화 전시장 뒤에는 다양한 국화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특히 국화꽃으로 한반도와 말을 만든 포토존은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그 옆 손 얹서 우체국에서는 서로 말로 하기 부끄러운 이야기들, 고마움을 전하는 이야기 등을 가족들과 친구들, 연인에게 쓰면 좋을 것 같다. 국화꽃 말고도 가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역새가 국화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반겼다.

참고로 국화꽃 전시회는 10월 30일까지 진행예정이며 여러 가지 체험들은 23일 까지 한다고 한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선 화성시 시민이라는 신분증을 제시 한다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현정(청소년자원봉사자) yuv894@naver.com
김윤진(청소년자원봉사자) nsa05520@naver.com



화성시여성단체봉사단 힐링체육대회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가 열렸다.

약 1,000여명의 여성단체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회 참가단체는 총12개 여성단체 및 학점은행, 여성단체후원회 등 이었다.

2016년 많은 행사와 더운 여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여성단체는 오늘 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6개 단체씩 참여팀과 소통팀으로 나누어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의 행사구성은 제3부로 나누어, 1부에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및 후원금 전달, 2부의 시작은 몸풀기로 시작하여 탁트트리기, 구름다리빌레이, 연명별 50m달리기 등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의 방식은 화합을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경기로 제3부는 뒗풀이 한마당 등으로 시상 및 흥운권 추첨을 하고 대회는 끝이었다.

대회 참가자는 화성시의 모든 여성들이 오늘처럼 활기넘치는 화합을 하길바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최지원(청소년자원봉사자) no1200134@naver.com
안예진(청소년자원봉사자) aa103311@naver.com



2016년 자원봉사자의 날 대상 수상자

봉사가 생활인 "이옥란"을 만나다~



1989년 서울에서 살다 결혼으로 화성시 장안면으로 내려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이옥란'은 시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봉사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하여 2016 자원봉사자의 날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도움과 남편의 응원, 지지로 1989년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즐겁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지금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시어머니께 '대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게 되어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혼자 힘으로 봉사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

장안면 적십자 회원으로 활동 하면서 반찬, 청소, 말뼛, 목욕봉사, 병원검진 보조, 연탄 배달, 집수리 등 어르신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어르신들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나 특징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녀는 지금 '적십자회', '호박냉면 가족봉사단', 사무실전산입력봉사 활동 등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다.

대상 수상 소감에 대해 '봉사를 나의 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전산입력 봉사 활동으로 경로당 방문이나 목욕봉사에 조금은 소홀하게 되었는데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웠으나 주위 봉사자들로부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준 것이라는 말, 진작 받았어야 했는데 등의 다양한 격려와 응원으로 대상 수상을 이해

하게 되었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막내 딸을 9월에 시집을 보내고 마음이 출가분하였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생겼다고 말하였다.

여행을 좋아하여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에는 남편과 오랜 시간 봉사를 함께 해 온 지인들과 여행을 다녔었는데 남편(정규홍-2대 대상 수상자)이 화성시지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바빠서 몇 해 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 하였지만 임기를 마치는 2017년 내년 2월 이후에는 '소매물도', '대매물도'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처음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 '욕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해 보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부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닦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봉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조선영(자원봉사자)
budhism@hanmail.net



10월, 11월
업무협력협약

9.28 봉사단체 기아자동차모터스카우트 봉사단 MOU



노력봉사, 자동차관련재능기부, 지역사회발전 연계

10.4 봉사단체 삼성투모로우솔루션 파랑새팀 MOU



청소년 척주측만증 개선 프로그램 지원

10.8 마을봉사단 치동천힐링마을 발대식 및 MOU

지역환경정리, 이웃돕기, 동탄4단지중합사회 복지관 활동연계



10.12 학교봉사단 화성반월고등학교 MOU

청소년 재능기부, 학부모 봉사연계, 지역발전 봉사연계



10.19 여성병원 수여성병원 MOU

봉사자 병원 진료시 진료비 할인



10.26 아파트봉사단 신안차 인스빌아파트 발대식 및 MOU

환경정리, 청소년 재능기부, 독거어르신 돕기



삼성전자 집수리 기업봉사

"삼성전자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삼성전자에서 사랑으로 흘린 땀,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꾸준히 무한돌봄서부 네트워크팀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적 특성 상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서부쪽과 같이 진행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 고쳐주기 대상자는 읍사무소 또는 마을 관계자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삼성전자에서는 2016년 총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4가구(송산면, 마도면, 남양읍, 송산면)의 행복릴레이가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이 벽을 다시 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일손 돕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흐뭇해하는 모습은 주위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활동이 활성화 될수 있다면 따뜻한 세상, 행복 가득한 화성시가 될것으로 희망한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현정(청소년자원봉사자) yuv894@naver.com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용주사

도참사상의 대가로 알려진 신라의 고승 도선 한양은 전국의 정기가 모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왕성이 들어설 것이며 왕실의 주인은 이씨가 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고려왕조는 이를 염려하여 고려중엽에 윤관으로 하여금 북악산 남쪽에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그것을 베어버리게 했다. 이는 오얏의 성한 기운을 없애 이씨가 왕조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였지만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1394년 10월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고승 도선의 말이 예언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조선은 건국된 지 6년 만에 권력을 움켜지려는 골육상쟁의 난이 연이어 일어나며 나라를 풍전등화의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게 하다가 조선이 건국된 지 370년 후인 1762년 아버지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11살의 정조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것이다. 1776년 영조는 52년 만의 통

치를 마치고 경희궁에서 83세에 세상을 떠난다. 25세의 정조는 영조를 땅에 묻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영우원이 해마다 산사태가 나서 무덤을 옮겨야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양주 땅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천하의 길지인 화산으로 이장을 단행한다. 1789년 정조가 즉위한지 13년째 되는 해이다. 13년 동안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싶었으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일이 마침내 단행된 것이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크게 드러나도록 응송히 보답한다'는 의미의 '현릉원'이라고 하고 1790년 보경스님으로부터 부모님의 크고 높은 은혜를 설명한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보경스님을 전국 8도도화주로 임명하고 정조의 지원과 백성들의 시주로 7개월 만에 용주사를 건립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정조는 현릉원과 용주사의 주위에 12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울창해지는 모습을 보곤 "평야

지대에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여 참으로 기이하다. 멀리서 보면 마치 관동절 저녁에 관동하는 것 같다"고 감격했다고 한다.

정조가 비운에 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심었던 나무들이 용주사에 깊어가는 가을풍경을 연출해서 정조의 백성이었던 후손들이 낙엽을 밟으며 정조의 효심을 느낄 수 있게 정조의 나무들이 용주사와 함께 대대손손 살아남아 폭 이어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참고도서: 김은경(2016), 정조나무를 심다, 북촌



1 글, 사진 · 율리미명예기자 장연주(자원봉사자) jang1101402@naver.com

화성이 드리는 건강한 선물 화성햇살드리축제

햇살드리 축제가 11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동탄4동 공공복지 장소에서 막을 올리고 11월 11일 금요일은 개막식과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한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업인들이 상을 받는 자리로 햇살드리 축제에 많은 손님이 초청되고 행사에 따라 흥겨운 무대를 선보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여서 더 큰 잔치가 되었다.

농업인의 날을 의미 있게 시작한 축제 3일 동안 개막식전 이벤트와 햇살드리 농산물 이벤트, 지역예술 단체공연, 햇살드리 OX퀴즈 등 많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맛보고 즐기는 모

습이 모두가 행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화성시 햇살드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였다. 가족 끼리 김장김치를 담그러 가는 우리가족김치 만들기 행사는 이제 자리를 잡아 축제기간 중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화성읍에서 키운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HACCP, G마크인증,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최고의 김치와 알타리무우로 480가족이 김장김치를 담그고 질임배추에 양념속을 버무렸다.

햇살드리 축제에 관련하여 우수농특산물 현장에서 마지막 3일은 행사장에서 담은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져 화성시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가 된 화성시 햇살드리축제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화성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햇살드리를 알리고 화성시의 우수농산물을 시민들의 구매로 안전먹거리로 믿고구매, 공급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였다.

1 글, 사진 · 율리미명예기자 김명숙(자원봉사자) rudiakim0325@naver.com



전문봉사단 및 봉사자보수리더자 교육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화성시 자원봉사자 리더자들을 위한 실제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을 11월16일 수요일 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리더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강사는 나사렛대학교 교수이자 Good image 심리치로센터장이신 장창민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들어가며

1. 아침에 눈을 떴을때 내가 근사하다고 생각 드는가?
2. 기억력이 옛날같지 않고 깜박깜박 하는가?
3.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요즘엔 짜증나고 신경쓰이는가?
4.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가?
5. 이전의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은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이의 도움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나 그리고 너 사이의 관계속에서 잘해주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삶을 살아가며 하고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명시하기를 강조한다. 작은 소망이라도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나 다른이와의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은 배려와 양보라고 거듭 강조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힘이며 양보가 많을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될거라 한다.

대인관계기술에서는 상대방이 말한 이야기가 반영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때 경청의 으뜸이 된다. 대화 중에는 주어인 나를 표현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전문 의사소통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며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관계들



을 쉽게 풀어주어 효과적이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이유가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닌 한번쯤은 부모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이 자주 들기를 바란다. 3시간여의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자원봉사 리더자들이 삶에 적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소현(자원봉사자) easycart@naver.com

핸즈온(Hands on) 프로젝트

손 쉽게, 손 잡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

지난여름 선인장 비모란을 만들어 V-캠프 바사회에 기부했던 그린환경센터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핸드온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이름하야

천연손수건 만들기

휴지를 사용하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 환경을 생각하고, 천연염색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가능하며, 추운 날씨엔 목에 둘러 스카프 빔으로 사용가능한 멋스러운 천연염색손수건

그린환경센터 1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핸드온 프로젝트는 1명당 하얀색 손수건 4장씩 나눠 갖고 자신만의 매력 넘치는 다양한 무늬의 손수건이 만들어졌다.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손재주가 없어 어쩔 줄 몰랐다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직원도 있었고, 못할 줄 알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직

원들 이었다.

분무기로 칠푼 뿌리면서라도 과연 "잘 될까? 잘 나올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예쁘다며 아이들이 좋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린환경센터 임직원들이 만든 천연염색손수건은 화성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기부되었다.

따라쟁이 - 천연손수건 이렇게 만들어요.

1. 하얀색 손수건에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예: 고무줄, 종이컵, 병뚜껑, 나뭇잎 등 활용) 구연산을 뿌려주면 흐트러지는 분위기 연출도 가능해요.
2. 빨아도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백반물을 뿌려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3. 예쁘게 접어 포장용기에 소독 선물해주세요.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가화(자원봉사자) betamom@naver.com

우리 마을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치동천 힐링마을 봉사단'

발대식 및
협약식 현장을 가다!

10월의 어느 멋진 토요일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치동천마을 봉사단'의 업무 협약식 및 봉사단 발대식과 기본소양교육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치동천 힐링마을 봉사단' 간의 업무 협약 서약을 마친 후 한승연, 이상미 학생의 자원봉사자 선서 그리고 김영을 이사장과 윤호석 센터장은 '치동천 힐링마을 봉사단'이 봉사를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 줄 것을 약속하였고, 배송학 단장은 봉사단을 만들면서 봉사란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과 함께,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

력 할 것을 다짐 하는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치동천힐링마을'은 동탄 2신도시내에 위치한 이주택 단지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마을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 가꾸기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을을 위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리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봉사단 발대식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마을이다.

협약식과 발대식을 마친 후 '길라잡이 봉사단'의 '이유선' 강사 주관으로 봉사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하는지 등 앞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봉사 기본소

양교육'이 있었다. 소양교육 후 봉사단원들은 마을 주변을 돌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 후 봉사단원들간의 앞으로의 봉사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이라 아직은 미숙하지만 살기 좋은 그리고 사람냄새 나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마을을 위해 좋은 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있기에 "치동천힐링마을 봉사단"의 의미있고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 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조선영(자원봉사자)
budhism@hanmail.net

제 4지역 3지구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합동봉사
다문화가정 김치나눔

가을 햇살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10월 26일 제 4지역 3지구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의 '다문화가정 김치나눔' 합동봉사(남양라이온스 클럽 · 화성마도라이온스클럽 · 남양남파라이온스 클럽)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소통, 교감, 한국의 정 나누기 그리고 한국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남양동 사무소 주차장 한쪽에서 알타리를 다듬어 소금에 절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김치를 버무릴 작업대를 설치하고, 주방에서는 김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양념들을 믹서에 가는 등 알타리 김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보석보다 아름다운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남양, 화성마도, 남양남파)과, 아이들 등에 업고 일손을 거드는 결혼 이주여성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참여한 봉사자들 다양한 봉사자들이 만나서 김치 나눔 행사가 이루어졌다. 양념이 완성되고 절



였던 알타리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드디어 알타리가 빨간 양념이라는 옷을 예쁘게 입어 여러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서 '알타리김치'가 완성되었다.

'알타리김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영양가 많은 무청, 그리고 김장을 담그기 전에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에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김치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서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지만 "제 4지역 3지구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합동봉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정,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것에 대한 즐거움 등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조선영(자원봉사자) budhism@hanmail.net



청소년 토요일프로그램

환경정화 활동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환경정화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흐린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봉사를 시작하였다. 이 환경정화 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명 당 각각 집게와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인도 주변의 쓰레기들을 줍는다. 환경정화 코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하여 주공5,6단지를 크게 돌면서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인도의 버려진 담배꽂이나 폐휴지등을 주웠으며 무겁거나 큰 쓰레기들은 다같이 힘을 합쳐 주워서 큰 비닐봉투에 넣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다. 개인별로 들고다니던 비닐봉지가 다 찼을 경우 비닐봉지를 잘 묶어 공동 쓰레기봉지에 넣은 후, 다시 쓰레기 줍기를 진행하였다.

쓰레기를 주울때는 안전을 위해 인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길을 건널때는 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길을 건넜으며 만약 급한 상황일때는 인원을 나눠서 길을 건넜다. 이런 방식으로 다친사람없이 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이 활동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활동이었지만 학생들끼리 어울리며 즐겁게 이루어졌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날씨가 쌀쌀했지만 서로 즐기며 할 수 있어서 보람있고 좋은 활동이었다고 말하며 만약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황리에 이루어진 이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1365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우리 주변을 깨끗이 정화하고 싶다면 한번쯤 신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최지원(청소년자원봉사자) no1200134@naver.com 이지현(청소년자원봉사자) hyunwldl@naver.com



추운겨울 따끈따끈 사랑의 나눔 찐빵 만들기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무지개공감 프로그램과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토요프로그램으로 향남읍 송곡리 경로당 어르신들 17명과 중고등학생 15명, 아플드리봉사단 등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이른 아침부터 센터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무지개 공감 프로그램은 2016년 11월부터 송곡리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넙킨 공예 화장지 케이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직접 찾아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향초만들기와 한지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금일 활동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찐빵만들기 나눔 활동으로 경로당 어르신께 드릴 찐빵을 손수 만들고 나누는 자리로 단팥 경단과 반죽을 만지면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흥겨운 모습이었다.

한쪽에서는 찐빵을 빚고 한쪽에서는 찜기에 찐빵을 찌는 모습이 행여 찐빵집과도 같았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찐빵은 용기에 담아 같이 하지 못한 어르신들께 전달 되었다. 송곡리 노인회 회장은 같이 한 학생들과 아플드리봉사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라는 소통의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에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가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모습을 보며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 사진 · 자원봉사센터 조성식주임(청소년프로그램 담당) chosung777@nate.com





하나가 되는 봉사 다문화 멘토링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다문화 멘토링은 11월 26일 해단식을 앞두고 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다문화 멘토링 봉사활동은 멘티 한명과 멘토 한명이 짝이 되어 4월부터 11월 해단식까지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고등학생 멘토와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생 멘티가 함께 격주로 진행되는 가정방문과 현장학습을 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온다. 그동안 세계문화의 날 행사나 스케이트 타기, 한국 민속촌에서 보다 깊은 우리문화 체험하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멘토 멘티들과 함께

모여 어울리며 사회성도 키워 나갔다. 가정방문 때는 멘토와 멘티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여서 공부를 봐주거나 자살한 고민상담을 하고, 뛰노는 등의 여러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 다문화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고등학생 멘토 중 한명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보람되며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다문화 멘토링은 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문화 멘토링은 대략 1년이라는 시간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갔다. 다문화 멘토링 봉사활동이 언젠가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아이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값진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다. 올해의 다문화 멘토링 봉사는 11월 26일을 끝으로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선영(청소년자원봉사자) parksy508@naver.com

청소년자원봉사자 봉사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향남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봄우리"

향남고등학교에서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자율동아리로 만들어 활동을 하는 봉사단 "봄우리"가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14명이 2명씩 조를 나누어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향남읍 백토리에 위치한 소망의집 양로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환경을 싫어 하셔서 정한 방침으로 봉사활동도 조용하게 진행된다. 우선 시설에 들어서면 청소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식사준비 및 식사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동아리 인원 중 오한결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이 봉사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오한결 학생(18)] 이미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요양원 봉사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서 추천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언제부터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오한결 학생(18)]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자]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줄 수 있나요.

[오한결 학생(18)] 처음해보는 봉사여서 부담감이 많이 들고 어색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박보영(청소년자원봉사자) qhdudlri@naver.com



어두운 검은색 연탄이 따뜻한 사랑의 연탄이 되었습니다.

델파이커넥션시스템즈코리아 사랑의 연탄나눔 ♡♡



기계, 설비, 자동차 업종의 자동차용 커넥터 제조기업인 델파이커넥션시스템즈코리아(유) 기업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화성시 팔탄면 지역 내 어르신 가정에 연탄나눔이 있었다.

델파이커넥션시스템즈코리아(유)는 14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1년에 1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즉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난 뒤 전문적인 봉사활동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고 장애인, 어르신, 보육시설에서 청소, 말벗봉사를 비롯해 재능나눔을 하였으며, 이번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회사가 위치한 팔탄면에 지역사회 환원을 하고자 팔탄면 서군내길, 가재리, 기천리, 울암리, 상하저길 5가정에 1가정당 600장씩 총 3000장의 연탄을 날랐다. 한 곳은 전체 모여 연탄을 날랐으며, 네 곳은

두 팀으로 나눠 이웃사랑실천을 함께했다.

▶ 여기서 잠깐!

연탄 1장 가격이랑 연탄 구멍은 몇 개일까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연탄 때는 가정이 많았는데 요즘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보편화 되면서 연탄은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아직 연탄때는 가정도 많고 7년만에 연탄값이 올랐다고 했다. 가격은 1장당 550원에서 670원까지 지역,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연탄구멍은 22개 그래서 흔히 22공탄으로 불린다.

임직원을 태운 관광버스에서 37명의 직원들이 내려 준비해온 앞치마와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연탄을 날랐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해온 첫 번째 마리아 할머니덕은 황토로 지어졌고 오래 된 집이다보니 기둥이 휘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혼자 산지 14년 되었는데 따뜻하게 날 수 있고 매년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다.

하루에 3장도 태고 4장도 태고 5장도 사용하며 추운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홍철웅사장은 “할머니를 겨울에도 따뜻하게 나세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연탄의 일생이 검은색으로 태어나 불을 만나면서 빨갭게 타올라 하얗게 변하기까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는게 봉사활동이지만 나도 살고 나도 살리는 활동이 봉사활동이라는것을 다시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가화(자원봉사자) betamom@naver.com



작은 나눔!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희망 행복!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교복구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지회장 이환용)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을)는 11월 25일(금)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교복지원 사업은 1년간 화성시 관내 용역사업의 수익금 일부 500만원 후원으로 관내 한부모가정, 저소득중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역아동센터 보호대상자 16명에게 교복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교복지원을 받는 16명의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보다 많은 기업과 봉사단체의 참여를 희망하며 내년에는 후원금이 증가하여 다양한 청소년기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복을 지원 할 수 있는 훈훈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글, 사진 · 자원봉사센터 왕현(재능나눔팀장) hyunksi@hanmail.net



수요처를 소개합니다.1

힘들고 지친 위기청소년들에게 < >을 주는 곳을 소개합니다.



남자는 양태요~
여자만 오세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안제도로 한 제안이 올라왔다. 학교 밖 특히 가출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숙식제공 및 상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여 학교 및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이 제안은 2014년도 부터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화성시에 단기청소년 여성쉼터가 생겼다. 9살부터 24세 여자청소년이면 3개월동안 이 곳에서 지낼 수 있으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의식주 및 교육, 의료, 정서분야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꾸며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해 차곡차곡 밑바탕을 그려 주는 곳이었다.

벼룩시장을 마치고 후원품을 들고 찾아간 회원들은 "아이들이 날 차갑게 대하면 어떨하지?" 했는데 여느 가정집과 같은 포근한 인상에 너무 좋았다고 했다.

센터 역시 지역 분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용품들, 과일들을 가지고 쉼터로 방문" 해주셨기에 고맙다고 전했다.

위기청소년들 고민이 있다면 주저 말고 1388이나 031-227-7935로 연락해보세요.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정과 사랑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있습니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가화(자원봉사자) betamom@naver.com

수요처를 소개합니다.2

엄마들의 쉼터 <로댐의 집>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로댐의 집은 2006년 12월에 개원해 갈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는 쉼터와도 같은 곳으로 화성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어지고 있다. 로댐의 집은 갈 곳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원은 5가정이며 2년 동안 있을 수 있다. 만약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미혼모들 나이는 18세부터 36세까지 다양하며, 주로 20대 초반 미혼모들이 많다. 이 곳에서 엄마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선호도 검사와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로 피부미용, 헤어, 네일아트, 간호조무사, 컴퓨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재무교육, 인권교육, 성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더 성숙하고 아기를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엄마로 거듭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로댐의 집 원장님과의 인터뷰>

Q: 로댐의 집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하나? 모집한다면 주로 어떤 봉사를 하나요?

A: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주로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때나 주말에 엄마들이 쉴 수 있도록 아기를 돌봐주는 봉사자를 해요.

Q: 로댐의 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A: 엄마들이 직업교육을 2년 동안 받고 나가서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Q: 그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엄마들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문제가 생겨 퇴소하는 엄마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Q: 앞으로의 목표나 다짐이 있습니까?

A: 갈데없는 엄마들이 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직업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윤진(청소년자원봉사자)

nsa05520@naver.com

단체를 소개합니다

- 흥미적성프로그램 -

<프레디저팀>을 소개합니다.



프레디저팀은 초·중·고의 학부모들로 2015년 화성시 창의지성센터의 지원으로 프레디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강사들이 교육재능나눔과 강의를 위해 모인 팀으로 자격증 취득 후 전문강사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프레디저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학생들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줄지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였고, 2016년 또 한 번의 창의지성센터의 도움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강사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받았다. 프레디저 방법으로는 프레디저 카드로 하는 진로탐색과 엘리스&프레디저 진로보드게임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여 흥미와 적성을 통한 진로탐색을 하여 꿈을 찾아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므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로 인해 여러 중학교의 요청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요청이 있는 학교나 행사는 직접 찾아가 꿈을 찾는 데 작지만 재능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 사진 · 프레디저 전문강사 홍미애

hongmiae78@hanmail.net

노인 복지 혜택



1 경로잔치

서비스 대상: 판내 65세 이상 어르신
행사 내용: 식전공연, 오찬, 식후 공연 또는 효도 관광
신청방법: 각 읍면동별 행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 가능

2 무한돌봄 직접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요양보호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장기 요양보
험 등급 외 및 사각지대 노인, 장애인 가구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간병,
목욕, 정서, 송영 등)

3 장수수당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
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장수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노
인장수수당을 지급

서비스 대상

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화성시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추연금을 받지 않는
만 80세 이상 장수노인

서비스 내용: 월 2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해당 읍면동 신청

구비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대리
인 방문시 대리인의 신분증 함께 지참)

문의: 경기도 화성시청 희망복지과

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전국)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 돌봄 기본서비
스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화 안부 서비스, 후원물품을 지원합니다.
노인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
거나, 전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노세연(청소년자원봉사자)

noseyeon@naver.com

박보영(청소년자원봉사자)

qhdaddlrl@naver.com



제1회 봉담맘 모여라 벼룩시장을 개최합니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중고 물품 판매 및 기
부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지역맘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매월 2째주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를 운영하는 봉담의 물소리어린이공원에서 이번
엔 엄마들의 벼룩시장을 한다니 너무 좋은 기회
같아 찾아갔다.

읍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인줄 알았는데 장
소 섭외만 도움을 주었고 모든 행사는 운영요원
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
다고 한다.

역시 엄마들이었다. 같이 올 아이들을 위해 요
구르트와 강냉이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페이스페인팅도 재능기부로 준비했으며
앞으로의 지속성을 위해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해 지문트리 만들기도
제작했다. 벼룩시장 판매지도 바
랬지만 운영부스 또한 분주했다. 한
쪽에선 화성시 단기 청소년 여자 선
터에 기부될 물품을 받아 정리하고,
한쪽에서는 엄마들을 위해 부침개
를 계속 굽고 나눠주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봉담맘 모여라 다음 벼
룩시장은 또 언제인가요?’, ‘빨리 했으면 좋겠
다’라는 게시글로 넘쳐났다.

엄마들이 직접 기획하고 행동하는 이런 벼룩시
장 놀러오세요~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김가화(자원봉사자) betamom@naver.com

화성시의 저수지는 안전한가요?

동방저수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에 위치한 동방
저수지는 수심이 얇고 주 면적은 62ha이다.

동방저수지는 자안천으로 이어져 공평항으
로 연결되 있으나 잘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저
수지로 호소수라고 한다.

동방저수지의 하천 수질 등급이 5~6등급으
로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동방저수지는 수질 등급이 너무 낮아 농
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어서 공업용으로만 사용
된다고 한다.

저수지의 동쪽 방향으로는 봉담면, 서쪽 방
향으로는 남양동, 남쪽 방향으로는 장안면, 향
남읍, 북쪽 방향으로는 비봉면과 접해 있다.

저수지 위에는 남양에서 팔탄 방향으로 가로
질러 가는 동방대교가 있다.

10월 30일, 간이 수질검사를 통해 저수지
의 PH농도, 경도(Total Alkalinity), 알칼리도
(Total Hardness), 수질 오염도(NO2-), 수질
자정작용(NO3-)의 수치 측정했다.

동방저수지의 자정작용 수치는 0ppm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는 것이다.

수질 오염도는 0.5ppm으로 약간의 유기물
이 유입돼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리도는 300ppm으로 측정됐다.

결과적으로 동방저수지에는 물고기가 거의
살지 않으니 낚시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하천 수질 등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 사진 · 올리미명예기자

노세연(청소년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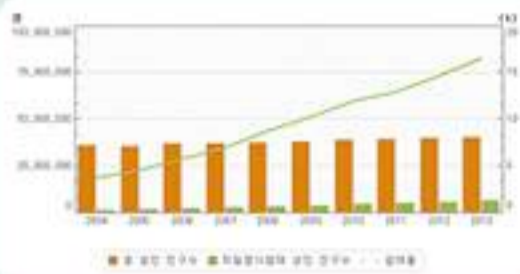
noseyeon@naver.com

박보영(청소년자원봉사자)

qhdaddlrl@naver.com

자원 봉사 활동 기본법

-자원봉사 관련 법률-



자원봉사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자원 봉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와 자원봉사의 날이 법으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출처: e-나라지표, 자원봉사 참여현황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퀴즈〉

Q : 자원 봉사자의 날은 00월 00일 이다.

A : 12월 5일

Q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X

A : O

글·울리미명예기자 김주희(청소년 자원봉사자) jooseekim@gmail.com

오늘의 생활한자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통해 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

他山之石은 '詩經(시경) 소아편 학명'에 나오는 '즐거운 저 등산에는(樂彼之園:낙피지원) 박달나무 심겨 있고(爰有樹檀:원유수단) 그 밑에는 닳나무 있네(其下維穀:기하유곡) 다른 산의 돌이라도(他山之石:타산지석)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네(可以攻玉:가이공옥)'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돌을 소인에 비유하고 옥을 군자에 비유하여 군자도 소인에 의해 수양과 학덕을 쌓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 바로 타산지석이다.

타산지석의 또 다른 유래도 있다. 먼 옛날 중국에 他山(타산)과 衡山(형산)이 있었는데,

형산에는 귀한 옥이 많았고 타산에는 쓸모없는 돌들만 많았다. 형산의 옥은 당연히 귀한 보석으로 값비싸게 팔렸지만 타산의 돌로는 아무런 보석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산의 옥도 갈고 닦아야 보석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옥을 갈고 닦는데 사용하는 숫돌을 만드는 재료로는 타산의 돌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타산의 돌들이 형산에 있는 玉(옥)을 연마하는데 아주 잘 갈아지는 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산의 돌로 형산의 옥을 다듬었다고 한다. 타산의 주인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옥을 다



뜻 : 다른 산의 돌
속뜻 :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나의 옥을 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자기의 지식과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됨

듣는데는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일들, 하찮은 일들, 별볼일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교훈을 얻고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려 애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내게 다 유익한 것이다. 좋은 일을 보면 마땅히 본받으려 노력하고, 나쁜 일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면 어떻까?

글·울리미명예기자 이명숙(자원봉사자) mslbb@hanmail.net



어떤 하루

신준모(작가) 글 · 김진희 그림

오늘은 어떤 하루 인가요?

그냥 그저 그런 날, 기분 좋아 소리치고 싶은 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날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당신은 그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있나요?

모두에게 같이 주어지는 24시간 365일을 남들과는 다르고 나의 어제의 하루와는 다른 나의 하루를 모두 다른 색채로 물들이고 싶지 않나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SNS에서 유명인사인 신준모의 '어떤 하루'는 우리의 하루를 다른 색채로 물들이게 하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저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실패를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류하고 있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었다. 그 글들은 저자 자신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에서 역대 연봉자가 되었지만 뼈아픈 실패를 겪은 후 일상의 소중함을 담아놓은 글이다.

'하루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그의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책을 보면 하루하루를 4계절로 묶어 우리의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용기를 담은 글을 볼 수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 취업, 진로, 사랑, 교육, 자식과의 관계, 이별, 진학, 사업, 친구, 인간관계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겪는 것들 모든 방면에서 용기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힘들다,
다들 아님 직 살아갈 뿐이다.

힘이 들면 당연히
힘을 못 내는 거잖아,
힘들면 힘내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서평하루 명언”



다. 중간중간 우리가 많이 본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 나온 명언들이 적혀있어 그것을 찾아 읽는 재미도 솔솔한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의 경험담으로 나온 진솔한 조언이 많은 독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글·울리미명예기자 안예진(청소년 자원봉사자) aa103311@naver.com